

2018 무역법 포럼 성과보고

각국 대표단 뿐만 아니라 학계, 실무가, 정책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로, 토론 주제와 발표 내용이 알차게 구성되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집중도가 매우 높았고, 이는 향후 각 참가자들의 업무인 정책 설정, 입안, 교육, 실무 등에서 반영되어 국제 규범 준수를 제고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지연(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팀 팀장)

1. 행사 개최배경, 목적

한국법제연구원은 2018년 9월 10일에서 12일까지 3일에 걸쳐 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 법위원회(UNCITRAL),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국제 무역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천광역시에서 후원으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었으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ISDS 개정사항과 국제 상거래 규정제정의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아울러 법학자와 실무가들의 토론의 장을 이룬 이번 무역법 포럼은 제1부에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ISDS 개정사항에 대해 각 국가 대표단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제2부에서는 최근 국제 상거래 현황과 이에 상응하는 규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소개하고 토론하였다.

2. 주요 논의 내용

먼저 10일 개회식에는 공동주관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과 후원기관인 인천광역시에서 각각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신희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환영사와 축사로 포럼의 성공을 기원하며 참석자들을 맞았다.

이어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안나 주빈-브렛 사무총장이 ISDS의 규정과 투명성 등에 관한 유엔국제무역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총괄하여 설명함으로써 제1부를 시작하였다. 연이어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제3작업반 의장인 캐나다 법무부의 세인 스펠리시 무역법국장이 그간 이루어졌던 작업반의 회의 중 가장 마지막 두 번의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진행된 제3세션에서는 안나 주빈-브렛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홍콩 앨런오버리 로펌의 매튜 하지슨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 임수현 사무총장, 세계은행 ISDS 국제 센터의 곤잘로 플로레스 사무국장이 각각 비용과 기간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짧은 휴식 시간 이후 바로 이어진 제4세션에서는 태국 외무부의 빌라완 망클라타나쿨 국제경제국장이 좌장을 맡고 유럽의회 무역정책 분쟁조정국 콜린 브라운 부장, 교토법학 대학원 쇼타로 하마모토 교수, 미국 국무부의 캐린 카이저 법률고문이 전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ISDS 개정사항에 있어 예측, 정확도, 정합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점심 식사 이후 오후에도 두 개 세션이 이어졌는데, 제5세션에서는 윤리규정을 포함하여 중재인들에 대한 의견을 전WTO항소재판위원인 서울대학교 장승화 학장, 런던 셔만스터링 로펌의 제레미 사피 변호사, 영구중재법원의 크리스탈 탐 변호사가 발표를 통해 개진하고 싱가포르 법무부의 나탈리 유린 모리스 사마 국제법국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첫날 마지막 세션인 제6세션에서는 제3자 자금지원률에 대하여 중국 상무부의 장 청화 조약법부장이 좌장을 맡고 홍콩의 테레사 청 법무총장과 비엔나 그래프 피트코비츠 로펌의

니콜라스 피트코비츠 변호사가 발표했으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안나 주빈-브렛 사무총장의 맺음말로 일과를 마쳤다.

둘째날인 11일 오전은 라운드테이블 토론으로 이루어졌는데, 10일 여섯 개 세션을 통해 논의되었던 쟁점들에 대해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저마다의 의견과 질문을 교환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라운드테이블 토론은 두 세션으로 각각 두시간씩 진행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이재민교수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제3작업반 의장인 캐나다 법무부의 세인 스펠리시 무역법국장이 각각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이렇게 제1부에서 ISDS개정에 대한 각 지역의 견해를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교환한 후, 둘째날 오후부터는 국제상거래 규범제정에 대한 최근 동향을 알아보는 제2부가 시작되었다. 먼저 첫 번째 소주제로 전자경제에 부합하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법을 다루었는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캐롤라인 니콜라스 선임법무관의 주재로 분산원장과 스마트계약에 대한 법적 쟁점을 제1세션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계약법적 관점과 법적 쟁점에 관한 제2세션에서 다루었다. 제1세션에서는 법제연구원의 최지연 연구위원, 마드리드 폰티피시아 코미야스대학의 파블로 베이온 교수, 교토 도시사 대학의 코지 타카하시 교수, 홍익대학교의 홍기훈 교수 등이 발표를 맡았고, 제2세션에서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센터의 법무담당관 김민정 검사, 가천대학교의 최경진 교수, 홍콩대학교의 앤칭 교수, 카타르 투자청의 선임법무관인 에하브 엘손바티 변호사가 발표를 이어 포럼 둘째날을 마무리했다.

포럼의 마지막날인 12일에는 제2부의 두 번째 소주제인 중소기업에 대한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기에 대하여 애나 주빈-브렛 사무총장의 주재로 두 세션을 진행했다. 제1세션에서는 중소기업에 친화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센터의 চে유람 법무담당관, 서울대학교의 노혁준 교수,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크리스찬 호프만 교수, 한국 중소기업연구원의 최수정 연구위원이 여러 각도에서 제시해주었으며, 제2세션에서는 중소기업의 분쟁해결방안에 대해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캐롤라인 니콜라스 선임법무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 권희환 팀장, 상해과학기술대학의 양젠정 교수, 비엔나 자일러 로펌의 알프레드 시위변호사가 저마다의 의견을 제시했다.

알찬 발표와 열띤 토론은 식사 후 마지막 주제인 담보대출과 파산분야의 발전사항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오수근 교수를 좌장으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이재성 법무담당관, 이화여자대학교의 한민 교수, 홍콩대학교의 줄리아노 카스테야노 교수가 참여한 열띤 토론을 마무리하며,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의 현준원 실장이 폐회를 알렸다.

3. 시사점 및 기대효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법무부와 함께 개최하는 무역법포럼에 올해는 구성을 바꾸어 법적 쟁점과 현황을 논의하는 파트에 더해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 대표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과물을 위원회의 정기회의에 반영하는 회기간회의를 도입하여 눈길을 끌었다. 제1부를 회기간회의로 구성하여 ISDS 개정안에 대해 각국의 입장을 공유하여 이해의 폭을 넓혔고, 제2부에서 국제상거래법의 현황과 현안이 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전문가 발표를 통해 깊이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 각국 대표단 뿐만 아니라 학계, 실무자, 정책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로, 토론 주제와 발표 내용이 알차게 구성되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집중도가 매우 높았고, 이는 향후 각 참가자들의 업무인 정책 설정, 입안, 교육, 실무 등에서 반영되어 국제 규범 준수를 제고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4. 향후 계획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와 법무부 등과는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에서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연구 결과와 규범 제정 등 과정과 결과의 공유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